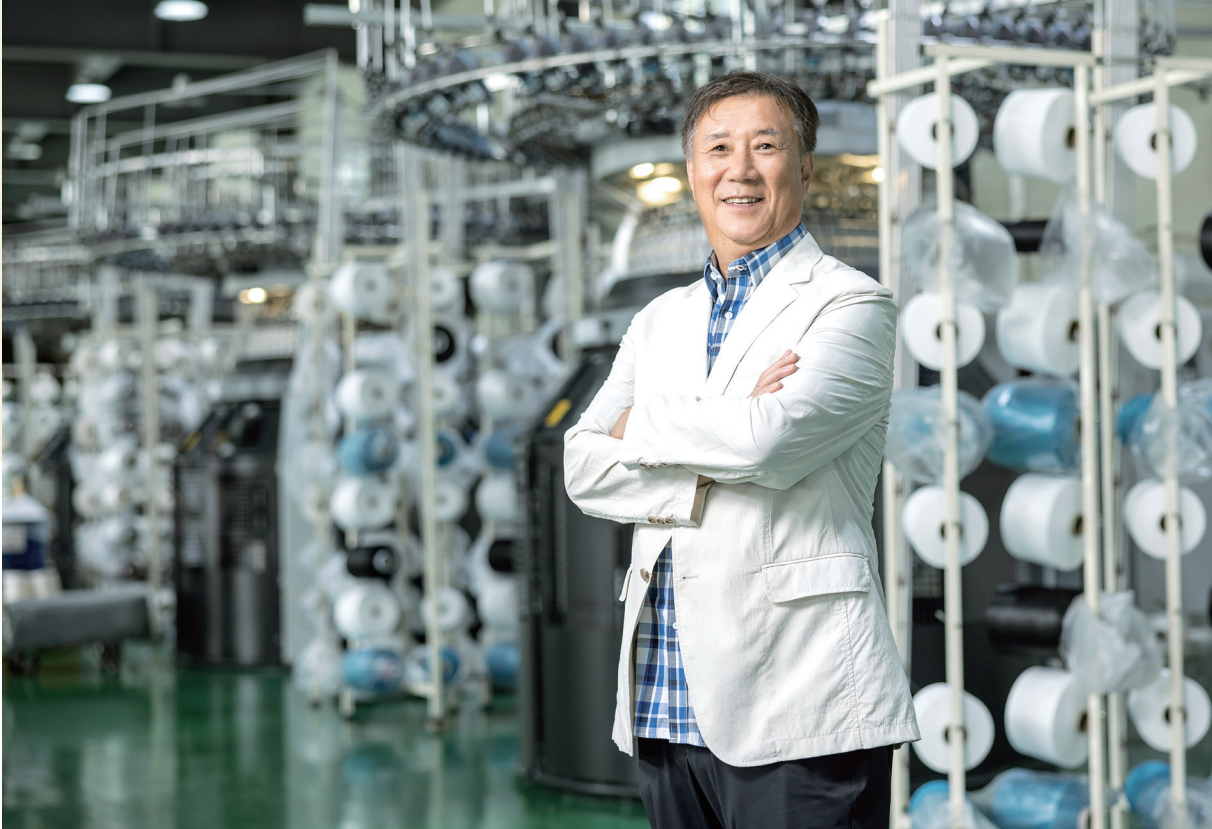


## 질 병 을 겪 으 며 나 누 는 행 복 을 배 우 다



우리나라 섬유업계의 산증인인 조규강 전 상현섬유 대표는 두 차례 암을 겪은 후 자신을 낮게 해준 서울아산병원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후원을 결심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최일선에서 이끌어 온 조규강 전 상현섬유 대표는 2005년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자기 몸 돌볼 새 없이 최선을 다해 온 그의 삶에 갑자기 제동이 걸렸지만,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의 치료와 가족의 든든한 지원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2017년 다시 전립선암이 찾아왔지만, 그동안 방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검진을 받아 온 덕에 조기에 발견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2년 8월, 조규강 대표는 두 번째 암까지 거뜬히 이겨내고 완치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완치 판정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아산병원에 후원 의사를 전하는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현재와 미래의 환자들, 의사, 간호사와 관계자들에게 귀하게 쓰이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다.

### 투병 후 시작한 제2의 삶

조규강 전 대표는 섬유회사를 공동 운영하다 1996년 상현섬유를 설립하고 니트원단 분야에서 손꼽히는 회사로 키워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열심히 하면 되고, 그게 또 재미있어서 사업을 더 열심히 했던 좋은 시절이었죠.”

조 대표는 IMF 시절 섬유산업 부흥기에 해외 진출보다 국내에 남는 것을 택하고 하남과 성수, 광주까지 공장을 늘리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웠다. 한창 회사를 키우기 위한 즐거운 고민을 하던 그때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몇몇 임원들에게만 사실을 알리고 입원 중에도 일을 계속했지만, 계속 사업을 이끌어가기에는 건강이 허락하

지 않았다.

조규강 대표는 수술을 마친 후 결국 30년 가까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그의 꿈을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기계설비 매각 등 정리 절차에는 꼬박 5년이 걸렸다. 모든 시설이 사라진 공장을 보며 조규강 대표는 허무감도 느꼈지만 그보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다행히 대장암 완치 판정도 받았고,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싶었다. 그때 아들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역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됐다.

“의류용 니트원단 분야는 지속적인 인력난과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 제 건강을 돌볼 수 없게 됐으니 현재의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아들이 남은 설비를 활용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지인들, 가족과 상의해서 매트리스용 원단으로 사업 분야를 바꾸고(주)에스에이치섬유를 열었습니다. 제 원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적용 가능한 분야여서 제가 조언을 하고,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두 번째 암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다

2017년 두 번째로 암 진단을 받았다. 조기에 발견된 전립선암이었고, 한 번의 경험이 있었으니 상대적으로 편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었다. 그때 조규강 대표는 비로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병원 안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군분투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규강 대표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서를 우연히 보게 됐다. “순간 ‘몸도 아픈데 저 부담감을 어떻게 견뎌 낼까’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힘들 수밖에 없겠다 싶었지요. 그때부터 유난히 병색이 짙고 행색이 초라하신 환자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할 수 있으면 도와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심사숙고 끝에 조규강 대표는 아내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별 말 없이 잠시 생각하던 아내는 단 한 마디만 했다. ‘순수한 마음이면 해도 좋다.’ 자녀들도 모두 아버지의 결정에 응원을 보냈고, 조규강 대표는 서울아산병원 발전과 코로나19 예방 연구,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후원했다.

## 내 소유를 나누는 뿌듯함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조규강 대표는 여전히 현역이다. 현재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나와 경영을 돕고 공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안한 인상과 활기찬 모습에서는 암 투병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그의 시각은 투병 전후로 크게 바뀌었다.

“제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의료진들을 보며 제가 해 온 일이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결심한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낫게 해준 서울아산병원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소중히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후원을 통해 베푸는 행복을 알게 되었다는 조규강 대표는 ‘전문적인 의료, 지속적인 기부와 환자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아산병원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글 편집부



조규강 대표는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주)에스에이치섬유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